

# 관광객 유치 언제까지 혈세 쏟을건가

### 전남도·지자체 매년 수억씩 들여 국내외 여행객 잡기 안간힘 인센티브론 한계 고부가가치·콘텐츠 차별화 상품 개발 시급

전남도는 지난 2017년 해외 단체 관광객 1만6364명을 유치하는 데 2억8072만 원을 썼고 2018년에는 2만2908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오는 데 8억1300만 원을 들였다. 지난해에는 8억9900만 원을 써 3만 5747명의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이었다.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이 매년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늘리며 단체 여행객 발길을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현금성 인센티브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고(高)부가가치·차별화된 지역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면서 낮은 지역 인지도를 높이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해외 단체관광객 5만3000명 유치를 위해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할 여행사에 10억 3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정기노선·전세기·크루즈 등으로 3만명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고 국가별 여행상품을 마련해 2만3000명을 유치한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연계한 상품을 운영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고 크루즈 기항 장려금 외에 모항 시에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을 찾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 3만5747명 중 절반이 넘는 2만

2481명이 중국·대만에서 온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대만 여행객들은 전년도(8954명)에 견줘 2배 이상 많아진 반면, 일본은 전년도(3933명)에서 지난해 2001명으로 크게 줄었다. 동남아·홍콩 여행객은 6006명(2017년)→7864명(2018년)→8381명(2019년)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3년 간 이들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오는 데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그나마 예초 책정한 예산이 매년 남았다는 점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가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해외 관광객 뿐 아니다. 화순군은 2017~2018년 1760여명의 단체 여행객을 불러들이는 데 3100만 원을 들였다.

해남군도 지난해 10월까지 1만1600명의 단체 여행객을 유치하는 데 1억9500만

원을 썼는데, 같은 기간 해남을 찾은 외국인 단체 여행객은 2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은 지난해 10월 말까지 2715명의 단체 관광객 유치에 3200만 원을 썼고 나주시도 최근 3년 간 1억원이 넘는 돈을 단체여행객 유치에 지원했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액을 매년 늘려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이 제한될 경우 전남을 찾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도 줄어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도 인팍에서는 관광객 수에만 집착, 예산을 지원하는 관광 정책이 아니라 재방문율이 높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상품의 질을 변화시키는 방향의 정책 발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공영주차장 요금 16년만에 올린다

### 시간당 1400→2000원

광주 공영주차장 요금이 16년만에 인상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을 담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다음달 7일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의 요금 체계와 불합리한 요금 구조를 개선하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에 따른 교통변화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시철도· 시내버스와의 접근성 등 수요에 따라 1~4급지로 구분한 공영주차장 요금을 2004년 이후 처음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1급지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1400원에서 43% 인상된 2000원 받는다. 2급지는 800원에서

1300원으로 63% 오른다. 3급지는 600원에서 950원으로 58% 인상된다. 이번에 신설된 4급지는 시간당 700원이다. 1일 주차권은 1급지 1만2000원, 2급지 8000원, 3급지 6000원으로 동결됐다. 4급지는 4000원으로 책정됐다. 광주시는 공영주차장 488곳에서 모두 1만5521면을 운영한다. 유료 주차장이 53곳에서 3144면, 나머지 435개소(1만2377면)는 무료 주차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주차장 요금과 불합리한 급지 체계를 조정해 효율적으로 교통 수요를 관리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다"며 "요금 인상이 담긴 조례가 심의 및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수 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인공지능·청년일자리 등 광주혁신위, 13건 의제 설정

시장 직속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올해 경제, 청년, 저출산,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워크숍을 열어 올해 중점 혁신 의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혁신 의제로 인공지능, 경제 자유구역, 청년 일자리 정책, 저출산 극복, 기후 환경 변화 대응 등 13건을 설정하고 분과별 논의, 전체 회의를 거쳐 결정 내용을 광주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포럼, 세미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도 구축해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의 열매 모금액 달성 감사합니다. 30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 열매) 관계자들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목표 모금액 달성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사랑의 열매는 전날 목표 모금액 53억4900만원보다 많은 54억3300만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01.6도를 기록했다.

## 여수산단 거버넌스,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 '탄력'

### 산단 현안 해결 13차 회의 주변환경·주민 역학조사 용역

전남도는 지난 29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현안을 해결하고, 최적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1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과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 용역 추진계획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용역은 오는 3월까지 보완해 사업비 산출을 마치고, 평가위원회는 4월 내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책임기관은 3월부터 전국 공모로 계획서를 접수·심사한 후 착수보고회를 거쳐 2년간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는 기업체의 환경개선대책 투자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도 제시됐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물질은 저감될 것으로 보고, 특히 TMS(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향후 관리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추후 기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발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는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공무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는 다음 회의에서 부족인원과 충원계획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다음 14차 회의는 2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마스터 플랜 추진 중간보고, 거버넌스 운영세칙에 따른 의제 이행방안 권고안 등을 발표하고 이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청년 시정참여 확대 청년위원 모집

### 대학생·취준생 등 50명 다음달 1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6기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 또는 활동 기반을 둔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자, 직장인 등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 19~39세 청년이다. 50명 이내로 뽑는다.

지원자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월 10일까지 이메일(jin80070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위원은 청년아카데미 교육 이수과 제안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1년 동안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며 청년정책 발굴 및 각종 시정 참여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내외 청년 단체와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손옥수 광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다수의 청년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교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위원회 위원을 공모한다"며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 있고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5년 1기부터 지난해 5기까지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정, 심리치료 바우처 등 청년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서울시와 손잡고 5·18 40주년 공동 기념사업

### 다음달 7일 시청서 협약식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시와 서울시가 손잡고 5월 정선 전국회를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서울시는 다음 달 7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한다.

이홍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5·18 3단체와 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기념행사 외에 민주 인권 평화 우수 정책, 광주비엔날레 5·18 특별전, 문화·예술 공연 등 교류

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와 서울시는 다음 달 20일 서울 시청에서 제40주년 행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광주비엔날레와 서울시립미술관의 5·18 특별전, 서울 시민 518명 광주 역사 탐방, 두 지역 시립예술단체 간 공연 등 예술 행사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5·18 기념 주간인 5월 14~21일에 서울광장 등에서 국내외 인사 초청 강연과 토론회, 민주 인권 평화 도시 선언 전국대회, '서울의 봄, 광주와 빛 서울 문화축제' 등을 구성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